

# 전주매일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음 11월 26일) 제1969호 **www.jjmaeil**\_com

대표전화(063)288-9700

#### 설국(雪國) 가는 내장산 아름다운 겨울 비경

지난 9일부터 11일 정읍에 많은 눈(11일 오 전 7시 기준 18.8cm의)이 내리면서 국립공 원 내장산이 아름다운 설국(雪國)으로 변신 해다.

입술을 뗄 듯 말 듯, 발걸음을 옮길 듯 말 듯 단이하고 이런한 설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노골적 유혹, 가을 내장산의 화려한 이름다움과는 결이 다른 풍경이다.

휘날리는 눈발을 의연하게 맞고 서 있는 나무들과 아득하게 들리는 솔바람 소리, 하 얀 솜을 뿌린 듯 피어난 눈꽃들.

우화정 지붕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눈부시고 은색의 이불로 덮인 산자락은 고 요하다.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 터널은 어떠한가! 108주의 단풍나무에 만발 한 눈꽃이 단풍보다 더 고운 눈꽃터널을 연 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바이호로 눈의 나라, 설국… 내장산의 겨울 이 시작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북 대도약 고향발전 온 힘

####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

새천년 맞아 힘·지혜 모으기로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시상식도 송 지사 "전북 자존의 시대 뒷받침 법률 제정에 노력할 것"

'2018년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일보사, 전북출신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 주관으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기관단체장 등 전북출신 각계각층 인사및 재경도민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 새천년을 맞아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할 것

을 다짐했다. 이날 행시는 내빈소개, 주요인사 새 해인사, 지랑스러운 전북인 상 시상, 전북출신 고시합격자 격려, 도정 홍 보영상 상영, 건배제의 및 덕담 순으 로 진행됐다.

또한 '제1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 수상자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고향 전북 발전을 위해 공헌한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이 수상했다.

아울러 2017년도 전북출신 고시합격 자 9명(외무고시 2, 사법고시 2, 행정 고시 5)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 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만금과 금융도시 의 속도를 높여서 미래 먹거리를 준 비하는 해로서 안전과 복지환경, 균 형발전에 더욱 많은 힘을 쏟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뒷받침할 4대 법률인 새만금특별법, 잼버리특별법, 국민연 금법, 탄소산업법 제정에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도약의 마지막 열쇠인 국제공항 조성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반구십리'의 자세로 목표달성의 순 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을 만들어가는 데에 재경도민 여러분 이 큰 힘이 될 것이며, 새천년을 맞아 우리 고향 전북이 더 큰 걸음을 내딛 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군산시, 내항 일원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시동

군산시가 내항 일원에 근대문화 중심 도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근대 항민역시관 건립의 시동을 걸었다.

항구도시 군산의 랜드마크 구축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 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비 1억원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

근대항민역사관에는 항만, 역사체험 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는 랜드마크 기능과 함께 수변 도시 특성에 맞는 핵심적인 관광인프 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체육시설 보수 시민 여가생활 돕는다

## 전주시, 44억원 투입 완산수영장 · 자전거경륜장 등 개 · 보수 내달 착공 8월 이전 공사 완료 목표…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추진

전주시가 시설이 낡아 이용하기 불 편한 완산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보수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올해 국비 13억 등 총 44억원을 투입해 완산수영장과 완산체육공원 내 인공압벽장, 자전거경륜장 등 3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총 39억여원을 투압해 지난 2004년 준공돼 시설이 낡은 완산수영 장의 내・외부 마감재를 교체하고 전 광판과 터치패드도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와 보일러・수위조절탱크 등 설비 교체 등도 추진된다.

지은지 27년 된 자전거경륜장의 경 우 총 8억여원을 들여 트랙을 보수 하고 관람석 외벽을 도장할 계획이 다.

또 총 5억원을 투입해 완산체육공 원 인공압벽장의 압벽패널을 교체 하고 스피드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 보강 및 방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 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3개 시설 개· 보수시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월 착공에 들어가 8월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들 생활체육시설이 보 수되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은 물론 오는 10월 열리는 제99회 전국 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해 오는 12 월까지 체육진흥기금 30억과 지방비 80억원 등 총 사업비 110억을 투입해 완산구 평화동 2가 322-1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농구장, 촉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지 을 계획이다.

아울러 평소 마땅한 공간이 없어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을 위해 송천동 인라인롤러장 인근 4만6,138㎡ 부지에 국민체육기금 50억원 등총 90억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다목적 체육 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Delta$ 완산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  $\Delta$ 이중체 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7곳의 바닥재 교체  $\Delta$  덕진수영장 샤워실 확장  $\Delta$ 생활체육 솔내 야구장 시설 확충  $\Delta$ 덕진구 게 이트볼장 구조보강 및 잔디교체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제99회 전국체전대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 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한층 더 높은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육시설이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면 향후 각종 대회 유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서는 오는 10월 12일부 한편 전주에서는 오는 10월 12일부 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99회 전국체 전 46개 종목 중 수영과 자전거, 산악 등 10종목이 열리며 25일부터 29일까 지 펼쳐지는 제38회 장애인체전 26개 종목 중 수영과 축구 등 6개 종목이 행해질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